

경제성장 마련 접고 경제안정 초점

2012 경제정책

정부가 12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성장보다는 위기관리를 통한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적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둔화가 현실로 닥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상황에 대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성장 미련 버렸다…거시정책은 유연=정책방향의 전제가 되는 정부의 경기 판단은 '준(準)경제위기'에 가깝다. 내년 성장을 전망치를 4.5%에서 3.7%로 광범위하게 낮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내년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만큼 이른바 MB노믹스의 키워드인 '47(연평균 7% 고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공약은 연이은 위기에 날아가 버렸다.

수출 증가율이 올해 19.2%에서 내년 7.4%로 둔화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도 주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와 위축의 결과는 고용

'경제활력·서민생활 안전' 위기관리 체제 가동

상반기 재정 60% 조기집행…제도개선 투자 유인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다. 취업자 증가폭이 40만명에서 2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사실상 성장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정부가 솔직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내건 슬로건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이다. 위기를 전제로 위기관리체제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혼자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제도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나 기업구조조정 세제 지원을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거시정책은 유연성과 탄력성이 중점을 뒀다.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내수 활동에 무게…민생안정에 중점=정책 코드는 위기관리에 맞추되 내수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수출은 외부 변수에 달렸지만 내수는

정책 의지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내년 성장을 3.7%의 기여도를 내수 2.9%포인트, 순수출 0.8%포인트로 전망한 것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재정 측면에선 상반기에 60% 안팎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이미 올해 11~12월에 쓰지 않거나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을 최소화해 50조원 가량의 재정을 끊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

투자에서는 제도 개선으로 유인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뒀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를 국내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 국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해선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넓혀 끌쳐 둡기로 했다.

일자리 대책은 주로 청년층에 맞춰



졌고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강조됐다. 신규 채용을 40% 늘리고 신규 채용 가운데 고졸자 비중을 단번에 20%로 확대해 민간 분야에까지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는 올해 54만개에서 내년 56만 개로 늘리고 지역일자리사업도 연장된다.

/연합뉴스

내달 대규모 특사 추진…김우중 사면대상 포함될 듯

청와대와 법무부가 내년 1월 중 영세 경제사법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면 대상자 세부기준 마련 등 실무자 업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정치인들은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법을

비롯해 경제활동 중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에 대한 특사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개별 대상자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서는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작년 8·15 특사 이후에는 사면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1월 사면이 이뤄질 경우

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7조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특사 시기로는 내년 1월 20일을 전후한 설 직전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작년 8·15 특사 이후에는 사면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1월 사면이 이뤄질 경우 현 정부 들어 6번째가 된다. /연합뉴스



외국인 한국관광 서포터즈 광주 초청

광주시는 10일과 11일 이틀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주관한 외교사절 6개국 9명을 포함한 100여 명의 외국인 한국관광 서포터즈를 광주로 초청해 국립 5·18 묘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객 유치 홍보행사를 가졌다. 〈광주시 제공〉

검, 공씨 친구 구속

디도스 사건 재수사

10·26 재보선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11일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공작선 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실전 비서 공모(구속)씨의 친구 차모(27)씨를 구속했다.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신고식 당시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밟혔다.

차씨는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해 옮긴 강모(구속)씨 회사의 임원이자 이번 사건을 단독으로 기획했다고 경찰에서 자백한 공씨의 중고교 동창이다. 차씨는 공씨와 강씨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차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관련자는 공씨와 강씨를 비롯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재보선 당일 새벽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상태를 점검해주는 등 디도스 공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안철수 멘토' 법륜 스님 초청 특강

청와대가 오는 14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정치적 멘토인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들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특강은 대통령실 송년행사 성격으로 법륜 스님 외에도 가수 노영심 씨,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일약 스타로 부상한 최성봉 씨, 전신 3도 화상을 딛고 일어선 이지선 씨 등

도 참석한다.

행사는 14일 오후 6시30분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되며, 청와대 직원과 직원의 대학생 및 수험생 가족 등이 참석 대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멘토인 법륜스님의 청와대 특강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전남선관위 '행복투표함·행복선거 업소' 운영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선거 활성화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권자와 함께하는 '행복투표함'과 '1390행복선거 실천업소'를 설치·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정책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행복투표함'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유동인구가 많은 44곳에 설치됐다. 이곳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게 바라는 정책공약을 기재할 '행복엽서'도 비치했다. 설치장소는 전남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남선관위 홈페이지(www.jn.nec.go.kr)를 통해 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RS로 이웃 사랑을 060-700-1212
<한통화 2000원>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

생계비 부담 줄이고 무상교육 3~4세로 확대

눈에 띠는 서민정책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 대책을 담은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에 이어 3~4세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예고돼 있다.

◇보육·교육비 부담 낮춘다=보육 예산에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 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만5세아 과정을 공통과정으로 '뉴리과정'으로 일원화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한다.

누리과정은 무상보육 확대 방침에 따라 만3~4세아에도 연차별로 늘리는 예산 반영안을 검토 중이다.

맞벌이 부모 증가로 늘어나는 야간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간

보금자리론이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3000명 이하에 한정했지만 내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집을 살 때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전·월세금 소득공제 혜택을 1인가구에도 준다. 총급여 요건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 1만호 공급하고 대학이 소유부지에 기숙사를 제공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출신진료비 지원 늘리고 일원화=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주거비 측면에서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장기·자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을 공급하는 게 눈에 띈다. 금리우대형

원으로 낮춘다.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자가 완전틀니를 할 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올해 30만1천명에서 32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요양시설 종사자는 인건비를 올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시간이 없어 편의점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위해 공휴일 겸진 기관을 1200~1300개로 늘린다.

◇맞춤형 복지 강화=복지 제도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게 한다.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주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급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17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연간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인다. 자녀가 없는 가구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연합뉴스

SINCE 1988

chilman.co.kr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욕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똑똑 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놓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주)칠만공사 / 칠만표 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 - 7722

광주 서구 352-7788
(062)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061)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발목펌프 운동



신개발 편백나무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 운동봉이란?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화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 뿐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아파트용)	75,000원

</